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7(금) ~ 2025.3.13(목)

제공일시 2025 3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7(금) ~ 2025.3.13(목)

제공일시 2025 3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독자 생존 나선 EU, '보조금 족쇄'도 푼다

-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재정 족쇄'를 해제한 유럽연합(EU)이 역내 청정에너지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함.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
- 유럽 매체 유렉티브에 따르면, 개편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특정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로 넓힘.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도 프로젝트 당 최대 2억2500만유로(약 3567억원)로 늘어남. 개편안은 현행 역내 보조금 지급 규정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하에 도입한 '매칭 보조금' 제도 역시 포함함
- EU 집행위원회는 개편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터리와 태양광·풍력 발전, 탄소 포집·저장장치(CCUS) 등 역내 청정에너지 산업임

[\(서울경제 2025.3.12\)](#)

2. 中, 'AI·양자기술·수소에너지 투자' 200조원 펀드 설립한다

-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2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운용하기로 함
-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6일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를 계기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 창업 투자 인도(引導)기금을 설립할 것"이라며 "목적은 혁신형 기업을 우수하게, 강하게,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함
-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기금은 AI와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영역에 집중되고, 시드 단계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됨

[\(연합뉴스 2025.3.6\)](#)

3. 日, I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 SSBJ)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발맞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공개함. SSBJ는 지난 2월 19일 개최된 제49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SBJ Standards)을 5일 공식 발표함
- 야스노부 가와니시 SSBJ 위원장은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SSBJ 기준과 ISSB 기준 간의 잠재적 차이를 더욱 줄였다"고 밝힘
- SSBJ는 공시 기준을 통해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마켓 상장 기업들이 국내외 지속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3.7\)](#)

국내 정책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6.8조원 투자...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기술 특위)’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함
-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 기술 육성을 위한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20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먼저,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입함
-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 등을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함

[\(천지일보 2025.3.12\)](#)

2. 환경부-IEA,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협력 약속

- 환경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망을 강화하고 있음
-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3~5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 IEA, 국제교통포럼(ITF)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함
- 김완섭 장관은 이번 면담으로 IEA, ITF와 정책협의체, 전문가 협력 등 신규 협력 채널을 개설함. 국제기구들과 올해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협력사업에도 합의함
- 김완섭 장관은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IEA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협력을 제안함. 환경부와 IEA는 앞으로 협력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매일경제 2025.3.6\)](#)

3. 중진공,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3월 6~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성과확산 워크숍’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협업해 특구 사업자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은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현황, 성과 공유 및 사업화 지원 교육 등으로 구성됨
- 이외에도 중진공은 올해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 개척단 등 보다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전자신문 2025.3.6\)](#)

글로벌 기업

1. TSMC-美 팹리스 동맹... 인텔 파운드리 인수하나

-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엔비디아, AMD 등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인수가 성사되면 인텔이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을 상당 부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최근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보도함.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하되 지분을 50% 미만만 갖는 조건임

[\(한국경제 2025.3.12\)](#)

2. 구글 클라우드·SLB·프로젝트 이너스페이스, 지열에너지 식별 가속화

- 구글 클라우드가 세계 최대 유전서비스 업체인 슬룸베르거(SLB) 및 지열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이너스페이스(Project InnerSpace)와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지열에너지의 채택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는 프로젝트 이너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지오맵(GeoMap)이 SLB의 자회사이자 지열에너지 서비스 분야 최대 기업인 지오써맥스(GeothermEx)의 지열 서비스 전문성을 결합해 전 세계적으로 지열 자원의 식별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임

[\(투데이에너지 2025.3.11\)](#)

3. BYD 에너지 스토리지, 유럽 에너지 저장 사업 진출

-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BYD의 에너지 저장 사업 부문인 BYD 에너지 스토리지는 포르투갈 그린볼트 그룹(Grenvolt Group)의 자회사 그린볼트 파워(Grenvolt Power)와 폴란드 내 두 개의 대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설비 용량 1.6GWh규모로, 현재 변전소 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임. 이번 계약은 중국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업체인 BYD 에너지 스토리지의 유럽 시장 확장을 의미하는 것임

[\(전기신문 2025.3.12\)](#)

4. 혼다, 中 엔진 생산능력 절반 감축... 전기차 전환 가속

- 혼다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엔진 공장 생산 능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임. 혼다는 광저우 공장 생산 라인 2개를 1개로 축소해 엔진 조립 능력을 기존 연간 52만 개의 절반으로 줄일 방침임. 혼다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차 엔진의 30% 수준에 해당함
- 이 같은 혼다의 행보는 중국 시장의 급변하는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전자신문 2025.3.11\)](#)

국내 기업

1. 삼성물산, 호주 노후 석탄발전소 부지에 BESS 개발한다

- 삼성물산이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州)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에 참여함
- 호주 에너지 기업 델타일렉트릭시티(Delta Electricity)는 삼성물산과 뉴사우스웨일스 중부 해안에 대규모 BESS를 개발하는 내용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힘
- 이 사업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도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일스포인트 노후 석탄발전소 부지에 BESS를 설치하는 것임
- 기존 석탄발전소는 2033년까지 폐쇄될 예정임
- 발전용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하고, 내년 초까지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임

[\(더구루 2025.3.11\)](#)

2. 성일하이텍, 美 인디애나공장 이달 가동... 배터리 리사이클 거점 확대

- 성일하이텍이 오는 3월 17일 북미 첫 생산 거점인 미국 인디애나주 '리사이클링 파크'를 가동함. 이번 북미까지 포함해 전 세계 6개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일) 거점을 구축함
- 생산능력은 연간 기준 셀 스크랩 2만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향후 전기차 약 10만대 분량인 4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임

[\(디지털타임스 2025.3.11\)](#)

3. LG엔솔, 폴란드 ESS 프로젝트 본격 착수... 5900억원 규모 계약 '최종 도장'

-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로부터 수주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함
- 10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브로츠와프법인은 PGE와 자르노비에츠(Zarnowiec) 양수 발전소 인근에 들어설 ESS 시설 건설을 위한 15억5500만 즈워티(약 5900억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오는 2027월 2분기 완공한다는 목표임

[\(더구루 2025.3.10\)](#)

4. 현대모비스, 폭스바겐 스페인 공장에 배터리셀 조립 라인 투자 확정

- 폭스바겐 그룹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손을 잡고 스페인 나바라 공장에 배터리 셀 조립 공장을 세움. 이번 투자는 폭스바겐 란다벤 공장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를 2027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돼됨
- 현대모비스의 나바라 공장 투자는 폭스바겐 란다벤 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전기 SUV 모델인 스코다 에픽과 폭스바겐 ID.2X의 배터리 공급을 책임짐

[\(글로벌이코노믹 2025.3.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3.7(금) ~ 2025.3.13(목)

제공일시 2025 3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정부,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지원 위한 '수익 보장 메커니즘' 도입 검토

-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확대와 산업계의 SAF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함
-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SAF 생산을 촉진하고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 보장 메커니즘(Revenue Certainty Mechanism, RC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ESG투데이가 밝혔음.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공청회를 진행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지원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 SAF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등 지속 가능한 원료를 활용해 생산되며, 기존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85%까지 감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SAF 의무사용 규정을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 SAF 혼합 비율을 2%로 시작해 2030년 10%, 2040년 2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이 규정은 영국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됨
- 그러나 SAF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함. 영국 정부는 SAF 생산시설 건설에 최소 6억파운드(약 1조1257억원)에서 20억파운드(약 3조7526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또한 연료 가격 변동성, SAF 수익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영국 정부가 도입 예정인 수익 보장 메커니즘(RCM)은 SAF 생산 확대의 주요 장애요소인 가격 변동성과 투자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임. 특히, SAF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생산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SAF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취지임
- SAF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항공유 업계에서 조성한 기금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반대로 SAF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SAF 생산업체가 차액을 반환하는 구조임
- 기금은 항공유 판매업체에 부과한 부담금으로 조성됨.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BP, 셸(Shell) 등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공급업체들이 리터당 일정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SAF 생산을 지원한다는 의미임
- 부과금은 SAF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과 유사한 방식임
- 마이크 케인 영국 항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친환경 항공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도 고려한 방식"이라며 "영국의 SAF 생산 역량을 키워 안정적으로 SAF를 공급할 뿐 아니라 수천 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공청회는 이달 말까지 SAF 생산업체, 항공유 공급업체, 항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SAF 수익 보장 메커니즘 법안(Sustainable Aviation Fuel Revenue Support Mechanism Bill)은 올 상반기 이내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5.3.12)